

가족(假族)

각본 김병윤

S#1. 바닷가 (낮 / 밖) 12월 24일

총을 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앞을 보고 있는 남자.
남자가 총의 방아쇠를 당긴다.

S#2. 현석의 집 (밤 / 밖) 12월 17일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방안의 풍경이 펜촉이라던가 종이 문치를 보아 작가의 집인 듯 하다.
집 안에서 현관문이 보여진다.
이내 소리가 멈추고 [가족] 타이틀 디자인 페이드인

S#3. 현석의 귀갓길 / 리오가 현석을 찾아오는 길 교차선 (밤 / 밖) 12월 17일

1. 현석이 마트에서 검은 봉투를 들고 나온다.
2. 현석이 버스 정류장에 서있고, 봉투에서 캔디바 하나를 꺼내 껍질을 벗긴 뒤 먹는다.
길 건너 반대편으로 리오가 걸어간다.
리오의 맨발차림에 피가 튄 흰 원피스, 그 위로 실험실 관계자의 걸옷을 주워 입고 있다.
리오의 추운 듯 양 팔을 움크려 몸에 붙인 채 사뿐사뿐 뛰어가듯 걷는다.
3. 택시 한 대가 한적한 길가에 멈춰 서고 리오가 내린다.
4. 리오가 현석의 아파트 앞에 도착 후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바라보고 현석의 아파트를 올려다본다. 그리고 현석의 아파트를 향해 간다.

S#4. 현석의 집 앞 (밤 / 밖) 12월 17일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가 보여진다.
현석이 자신의 집 앞 복도에 도착하고 자신의 집 문 옆에 있는 리오를 처음 발견한다.
비닐봉지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 현석 폴샷

현석 거기 누구예요?

쫓그려 있는 리오
리오가 앉아서 현석에게 손을 흔든다.

리오 (반갑다는 듯이)어 왔어? 밤 늦게 어디 쏘다녀. (웃으며)출다. 문 열어줘
현석 (리오에게 다가가며)아니 누구신데요.

S#5. 현석의 집 (밤 / 안) 12월 17일

뉴스가 나오고 있다

리오에게 물을 건네주는 현석 손만 나오고 리오 앉아서 정면

현석 여기요.

리오가 컵 안의 내용물을 바라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쳐다본다.

리오 그 제로 콜라는 없어?

앉아있는 리오를 쳐다보는 현석

리오 (얼굴을 왼쪽으로 45도 돌리면서 웃는다)아니면 아이스크림?

앉아있는 리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현석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흔들며 리오 눈동자를 위를 올리며 생각하면
서)그러니까 당신 말대로면

리오 어어

현석 그 뭐냐. 클론.

리오 맞아 맞아 클론

리오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며 말한다.

고개만 뒤로 돌리는 리오

리오 (아이스크림 바를 손 위로 흔들며)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

한숨을 쉬며 머리를 뒤로 넘기는 현석

현석 음.. 아.. 예..

현석이 고민하다가 손으로 알아서 하라는 듯이 짓는다.

현석 예 드세요.

리오 (냉장고 안 아이스크림을 고르면서)되게 말 못 알아 듣네. (캔디바를 들면
서)아니 캔디바 밖에 없어. 아니 다른 건 없어?

현석 (그 자리에서)예 그것만 먹어요

리오. 한숨을 쉬고 냉장고에서 캔디바를 꺼낸 후 캔디바 껍질 끝 부분을 입으로 물고 문을 닫는다.

리오 (입술을 삐죽거리며) 뭐 안 듣는 건가?

현석 아니 이해되겠어요?

현석이 바닥에 털석 주저 앉는다.

바닥을 보고 말하는 현석

현석 갑자기 누가 아니 (벽차오른듯이 호흡) 집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것도 이상한 데 클론? 시간여행도 한다고 하지? 닳았으면 몰라. (리오를 쳐다보고) 하나도 안 닳았는데 무슨 클론이예요. 그리고 클론이라느니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리오 (현석을 쳐다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응? 아무도 말 안했어?

현석 예 아무...(말하다가 멈춘다)

리오 가족도?

현석이 사진을 바라본다.

빛에 반사되어 현석을 제외하고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사진이 보인다.

현석 예 가족도요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어서 다 먹는 리오.

리오 으.. 그냥 쉽게 생각해. 난 과학기술로 생명연장 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가 짜야. 가짜. 뭔가 너가 다치면 눈깔이라던가.? 심장 뭐 장기 있잖아. 가는 부품 정도인거지. 나는

리오가 거울을 보며 손으로 눈을 강제로 벌린다.

리오 그러니까 내 모든 게 널 위한 거~ 라는 거야

리오가 아까 위치에 다시 돌아와서 앉는다.

리오 안타깝게도 전 실험실에서 갇혀서 한 번도 본적도 없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응? 왜 그렇게 쳐다봐. (코를 찡그리며) 어떤 생각을 하는 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생각 하는 것만큼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밥도 공짜로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건강해야 팔기도 좋으니까 그랬을까? (현석을 바라보며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네?

정적이 흐르는 방안

리오 (갑자기) 근데 이럴 수가! 세상이 다음 주에 평! 하고 망한다네? 어?

리오가 양손을 들고 어깨 올린다.

리오 이제 클론이고 건강이고 무슨 쓸모야. 다 도망갔더라고. 그래서!

리오가 현석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으면서 오른손으로 브이한다.

리오 나도 도망 왔지.

리오가 현석을 바라보고 웃는다.

의자에 털석 앉는 현석.

현석이 자신의 눈을 가리며 한숨을 쉰다.

리오 으하하하하 (손사래를 치며)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다음 주면 너나 나나 없을 텐데

현석이 손을 살짝 내리며 리오를 바라본다.

의자를 돌려서 리오 방향으로 똑바로 앉는 현석

현석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두면서)저기요. 난 믿지 않습니다.

리오 어떤 걸?

현석 둘 다요.

리오 좋네 음 믿지 않아도 돼. 안 믿어도 안 바뀌니까.

현석 그래도 뭐.. 좋은 주제긴 하네요.

현석이 비웃고 컴퓨터를 바라본다

현석 뭐 좀 쉬다 가십쇼

키보드 소리와 현장음만 들린다.

리오가 눈치를 보다 현석이 뭐하는지 궁금하다는 듯이 붙는다.

리오 뭐해?

현석 글 쓰고 있습니다.

리오 글? 작가님이야? 본체는?

현석 (고개를 아래에 박고 단어를 곱씹으며)본체..

현석 예 (모니터에 시선을 둔 채로)이번 주 금요일까지 써야 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때가 데드라인입니다.

리오 앵 다음 주에 지구가 사라진다니깐?

 그거 내고 이틀 후가 당신 데드라인일걸?

현석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 작갑니다. 마감은 약속이고.

리오 성실하네.?

리오가 현석에게 다가간다.

리오 왜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거야?

현석 이런 거요?

현석이 모니터를 쓰다듬는다.

현석 이 세상엔 뭔가 된 듯이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라는 타이틀에 목메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리오 왜?

현석이 리오를 바라본다.

현석 허. (살짝 화난 듯 소리가 점점 커진다.)바보 같아요? 당신도? 그렇죠? 그렇겠죠.

리오 음.. 잘 모르겠네?

현석 예?

리오 (고민을 하다가 뒤로 손을 대고 고개를 뒤로 꺾으며) 어 진짜로 모르겠어. 아 처음이니깐 잘 모른단 말이지이? 네가 밖에서 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고 딱히? 그리고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해도 되지 않아? 뭐 범죄도 아니고

현석이 움찔거린다.

키보드 타자치는 소리.

현석 아 죄송합니다. 순간 발끈했네요

리오 그래그래~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침묵이 이어진다.

현석이 하.. 하면서 머리를 긁는다.

현석 (리오를 바라보며) 그 가족.. 아 없겠네요. 그죠

리오 일부러 계속 말걸 필요 없어. 괜찮아.

현석 아 네. 밖에 아는 사람도 없는 거죠..

리오 응

현석 거기서 있어도 됐잖아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멸망하는데.

리오 그러게 왜 나왔을까.

현석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리오 소원이 있었거든.
현석 소원..이요?
리오 응. 너만이 이뤄줄 수 있는 소원.
현석 저요?

리오가 현석을 바라보지 않고 말한다.

리오 응 너.
현석 뭘까요..?

말 안 할 듯이 현석 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리오

현석: 아!

답답하다는 듯이 본인의 머리를 긁는 현석
리오가 현석을 쳐다본다.

현석 그러면 이상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같이 (한숨)그
일주일 간이긴 한데. 어디 가실 곳 없으시면 저희 집에서...

리오 살아도 돼?

리오가 현석 바로 옆에 무릎 꿇고 머리를 내밀고 있다.
바로 옆까지 기어서 온 듯하다

현석 어... (뭔가에 흘린 듯이) 네.
리오 그래그래! 어후 야! 잘 지내보자!

리오가 현석의 어깨를 치고 웃는다.

리오 생활비는 낼게 나 돈은 좀 있어. 훔쳐 왔거든 아 이제 필요 없나? 사라지니
까?
현석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시네요.

리오가 손 들고 말한다

리오 나 땅바닥에서도 잘 자!
현석 아 예.

현석이 리오를 바라보고 멍 때리다가 한숨을 쉬며 멧쩍은 웃음을 짓는다.

현석 (포기한 듯이)그래요.. 그래요! 그럼시다.
리오 아 진짜? 진짜로?
현석 어차피 안 나가실 거 같기도 하고. (유리창 밖을 보며)뭐 당신 말로는 간혀
계셨고 밖은 지금 위험하니깐요.
리오 좋아 (웃는다)
현석 이불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리오 네에
현석 이름이 뭐예요? 아니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리오가 현석을 바라본다.

현석 계속 저기요 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리오 내 이름? 뭐 불리는 건

리오가 종이랑 펜을 가지고 와서 적는다.
HS-252 라고 적는다

리오 HS는
현석 예 제 이름이 현석이니까요.
리오 252번 뭔가 했나봐 뭐 어쨌든 그래서 252번이라고 불렀어
현석 그러면 이름은 딱히 없네요. 계속 252번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이오
이.. 리오 어때요 리오? 스페인어로 강이에요

현석은 리오에게 강 사진을 보여준다.
빤히 쳐다보는 리오.

현석 별로..예요?

리오가 강 사진을 계속 본다.

리오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진짜 마음에 들어. 좋네..

현석이 눈치 보다가 말을 건다.

현석 그.. 근데 아까 말하셨던 소원이 뭐니까. 말하기 싫으시면 말 안하셔도 돼요.

리오가 현석을 바라보다 말한다.

리오 아 맞네 그래. 별 거 아니야. 음.. 잠시만~

리오가 자신의 가방을 뒤진다.

리오 찾았다. 이거 받아.

리오가 현석에게 총을 던진다.

현석 예

리오 뭐 나오면서 하나 훔쳐왔어.

현석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총기..

리오 (웃으면서)다음 주면 죽는다는데 무슨 법이야~

현석 그래서 소원이..

리오 (해맑게 웃으며)세상이 끝나기 전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죽여줘.

현석이 불안한 듯 일어나서 왔다갔다 거린다

현석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리오씨 소원 그거 맞아요?

리오 어!

현석 왜.. 왜요?

리오 다 같이 죽는 것보다 먼저 죽고 싶어. 한꺼번에 죽어서 지옥 가면 뭔가 단체 관광 같잖아. 으 싫어. 어 그렇게 되면 내가 지옥 선배님이네. (뿌듯하다는 듯이 허리에 손을 대며 말한다)에헴

리오가 당황한 현석을 바라보고 웃으며 말한다.

리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이었어.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내가 선택 못했으니까 마지막은 내가 선택할래.

현석 시점 (소리가 뒤로 빠져서 들린다) 총을 바라보고 있다.

리오 굳이 필요 없어 딱히 더 살고 싶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만족 하기도 하니까. 근데 넌 어떡하나? 너 더 살고 싶어서 나 만든 거 아니야? 아 만든 건 박사 아저씨들이니까. 음 뭐라고 하지 투자? 아 모른다고 했지?

총을 만지다가 열어보는 현석

현석 어..?

리오가 계속해서 웃으며 말한다.

리오 근데 자살이란 거 되게 사치 아니야? 돈도 아니고 목숨을 (손으로 총모양을 만들어 머리에 대고)뿡~ 흐하하하

총알의 갯수를 세어보는 현석

리오 어 그러면 살인도 해보고 자살도 해보는 거네? 너가 나니까 맞지? 아닌가?
부럽다야 좋은 경험이네

현석은 식은땀이 난다.

현석 가짜죠? 에이 가짜잖아요.

리오 맞아볼래?

현석 아뇨.

현석이 리오를 바라본다.

현석 한..발 남았는데.. 나머지는요?

리오가 창문을 바라본다. 창문 밖에서 현석과 리오 샷

리오 (리오 아련하게 비웃으며)다 췌어. 다 죽었고

S#6. 현석의 집 (낮 / 안) 12월 18일

현석이 생각에 잠긴 듯 한 표정을 한다.

리오(V.O) 아아 어제 한 말 계속 신경 쓰는 거야?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은 원래 죽잖아

현석 아니.

현석이 고개를 돌린다.

리오가 현석의 바로 옆에서 고개를 거꾸로 하고 있다.

현석 허! 으아워웁 아니! 왜 그러고 계셔요..?

리오 흐하하 반응이 좋네

현석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리오 집에만 있으니까 이려는 거 아니야~
너 봐바 저게 뭐야

구겨진 원고지가 보인다.

현석 컴퓨터론 잘 안 써져서..

리오 그렇다고 저렇게 하면 되냐아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 하루 종일 있을 거야?

현석 아직 다 못 써서..

현석과 리오, 서로 침묵한다.

리오 (억지 부리듯) 아아 밖에 나가야 영감도 쏟아지고 그러는 거여어
 나가자 나가자아아아

현석 흠..
 하..
 그래요! 그럼시다.

리오 진짜?

현석 네 밖으로 나가죠?

현석이 리오를 위 아래로 훑는다.

현석 옷도 사고. 장도 보고 좀 공기 좀 쐬고
리오 (의외라는 듯이)헤에 갑자기?
현석 (기분 나쁜 듯이)왜요 가기 싫어요?
리오 아니 아니 아냐 (현석을 이끌며)가자. 갑시다갑시다~

신발장에 신발을 보고 리오를 쳐다보는 현석.
리오의 신발이 없다는 걸 인지 한듯하다.

현석 (리오를 바라보고)신발도 사야겠네요.

S#7. 시장 (낮 / 밖) 12월 18일

[시장 몽타주]

1. 시장에서 현석과 리오가 장을 보고 있다.
2. 옷과 신발을 입어보고 신어보는 리오
3. 리오가 웃고 현석은 힘들어 보인다.
4. 리오가 장을 보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다.

리오 어 되게 평범하네.

현석 뭐 난리라도 나아 되나요

리오 음.. 그래도 일주일전인데?

현석 1999년 2012년 세상이 멸망한다고 떠들어 댔어도 세상은 안 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리오 멸망하지 않는다.?

현석 네 그렇죠

리오 오만하네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잖아.

현석 지금 정부는 믿음을 잃었거든요

현석이 잠시 생각하다 이어서 말한다.

현석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가져온 장점 정말 많죠
 근데
 밝은 만큼 그림자가 더 진다고
 단점도 계속해서 장점이랑 같이 커졌어요
 인터넷에는 음모론자, 밖에는 황색언론. 그리고 사이버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커져
 어느 순간 진실을 덮기 시작했고
 그 거짓들이 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진실이 되자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기 시작했구요
리오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풍경이 보인다

현석 뭐 안 믿으면 그게 찌라시고 사이버니깐요.
 그래서 전 지금 현시대는 타인의 믿음을 무시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리오 그래도 사람은 안 죽이니까 좋네.
현석 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리오가 고개를 뒤로 꺾고 쳐다본다.

리오 (총을 든 연기를 하며)막 영화나 보면 흠치고 막 죽이고 하자나
현석 (단호하게)흠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리오를 쳐다보고)인간은 책임지니까
 존중받는 거예요.

현석이 먼저 앞으로 나아간다.

리오가 현석의 말을 비꼬듯 따라하며 뒤따라간다.

리오 으. 인간은 책임지니까 존중받는 거예요

리오가 앞으로 가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힌다.

편집자 아.
리오 죄송합니다.
편집자 괜찮으세요..?
리오 네네 괜찮아요.
편집자 (현석을 보고)어?
현석 어.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기는 무슨 일로

현석 뭐 잠시 장 좀 보느라 우연히?
 여기 사시나 봐요
편집자 아 네

편집자가 눈살을 찌푸린다.

편집자 여자친구?
리오 (고민하다가)음.. 비슷한 거?
현석 (리오를 바라보고 어이없다는 듯이)친척입니다.
편집자 바쁘십니까?

현석이 리오를 바라보고 말하려고 하자 리오가 중간에 끼어든다.

리오 아! 괜찮아요. 나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둘이 대화 하고 와!

리오가 앉아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 현석이 멀리서 편집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리오의 시점)현석이 편집자의 이야기를 듣다 표정이 굳고 짜증과 화를 낸다.

S#8. 내천 앞 (저녁 / 밖) 12월 18일

강에서 물수제비를 하는 현석과 리오

현석이 고개를 리오쪽으로 두지 않고 물수제비를 던진다.

현석이 던진 돌이 6회 성공한다.

현석 아싸 6번. 설거지는 리오씨가 하셔야겠는데요?
리오 왜 이런걸 잘하는 거야. 오아 7번 한다. 딱 기다려.

리오 물수제비를 할 돌을 만지면서 말한다

리오 꽤나 다들 정상이네 본체 말대로
현석 바보 같은 거 아닐까요. 미련 많은 거죠. 사람들은 직면하기 두려워하거든요.

현석 옆모습 웨이트 샷
저 멀리를 보고 있는 현석

현석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리오 응
현석 세상이 안 끝나면 어떡해요
리오 그러면 다행인거지. 이렇게 예쁜 세상에 살 테니까?
현석 그러면 살인죄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리오 근데 따져보면 자살 아니야?
현석 그 사람들이 믿어 줄까요.
리오 왜? 왜 안 믿어?
현석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건 믿지 않아요.

리오가 고개를 돌려 현석을 쳐다본다.

리오 (다시 정면을 보고 물수제비를 던지며)오야! 그런데 종교 그러니까 신은 믿
잖아. 인터넷도 믿고

가만히 고민하는 현석

현석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네.
뭐 종교는 이제 전 문화나 전통 정도라고 생각해요.
믿으니까 믿는다. 이 정도인 거지 뭐 대단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어야지
(리오를 바라보고 해맑게 웃는다)그리고 무언갈 믿을 수 있는 순수함
나쁘지 않지 않아요?
리오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 씨 까비
현석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리오 뭘 나도 즐거웠어.
현석 보셨죠. 그 아저씨랑
리오 그 아저씨는 누구야?
현석 아 편집자예요. 지구 종말이 내일 모런데 굳이 굳이 와서 제 글이 구리다는
거예요. 요즘 정통 판타지를 누가 하냐는 이 뭐 문장 구조가 뭐 어떻냐니.
알아요. 제글 구린 거 그래요. 내가 썼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야 되
나.

[회상 몽타주]

1. 안경을 꺼내서 쓰는 편집자
2. 천천히 읽고 얼굴을 바라보고 문장 가리키며 하나씩 집는다.
3. 편집자 얼굴이 보이는 후방. 투 샷
4. 편집자 얼굴 클로즈업. 대본을 보고 있다.

현석 근데 더 화나는 건 그 사람은 진심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글을 읽
고 싶어서 남은 사람이었고. 전 지구 종말 2일 남은 이 날에 그 시점에 내
글을 끝까지 읽어 준 독자에게 화를 내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너무 화나더
라고요 저한테.

리오 사과했어?
현석 사과요? 못했네요.
리오 왜?

현석 마주보기 두려웠나 봐요. 마지막 글에 미련이 많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
보 같은 거 아닐까요.

리오 큰 돌을 들고 던진다.

리오 큰 돌을 들고 던진다.

화면 앞에 큰 돌이 떨어진다.

큰 돌이 떨어지며 물이 올라오고 그 순간 무지개가 나온다.

현석 에이 그건 물수제비가 아니잖아요.

리오가 현석을 바라보고 웃는다

리오 헤헤

무지개를 바라보며

리오 예쁘다..

현석 무지개네요.

현석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말한다.

현석 (입 클로즈업)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신과의 약속을 뜻한대요. 노아에게 홍수로 인
간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신의 약속 (새끼 손가락을 들며)

리오 바보 아니야? 연쇄 살인마랑 약속을 왜 해. 결과가 이거네.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인 거야.

현석 입장 차이 아닐까요.

신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깐요.

리오가 현석을 바라보고 다시 정면을 바라본다.

리오 너도 못 지키는 상황이면 안 지킬 거야?

현석 그런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약속 안 했어요

리오 그러게 넌 그렇겠구나.

음.. 그래도 무슨 상황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넌. 약속 지켜줘.

현석 무슨 약속... 아 아니! 애초에 약속 안 했잖아요 누가 그런 소원을 들어줘 아
니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작 하루잖아요? 그냥 하루 더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리오 하루 더라

(주변을 240도 정도 돌며)만약에 너 말대로 거짓말이라서 세상이 망하지 않
으면 어떡하지? 난 없는 사람이잖아. 난 있던 흔적도 없어.

그래 이해 못하겠지? 너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절대로 몰라!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굴잖아. 거기서 갇혀 있었으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현석 (안타깝다는 듯이)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예쁜지 모르잖아. 어떤지 모르잖아.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이후가. 당신은 모르잖아.

리오 응 나는 몰라. 너는 알아? 너도 모르잖아. 난 너랑 다르게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알아. 인정하고 거긴 책밖에 없고 책으로 보는 세상은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래 너 말대로 즐거울 수도 있어. 근데. 있을 수도 있는 건 싫어. 난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날 죽여줘 이현석. 알겠어?

리오가 현석을 강렬하게 바라본다.

현석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석양빛에 반사되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리오

리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현석 화나셨어요?

리오 아니! 왜 화나?

잠시 풍경을 보다가 돌 뒷모습

리오 현석 쪽을 돌면서 현석을 지나친다.

리오 음 집이나 갈까? 오늘 뭐 먹을까?

현석이 리오의 뒷모습을 보다 따라간다.

리오 근데 미안하니깐 설거지는 너가 하는 거지?

현석 아 그런 게 어딴어요

S#9. 현석의 집 (밤 / 안) 12월 22일

방문을 열고 나오는 리오. 어두운 밤이다.

리오 (냉장고 문을 열며)물.. 목말라.. 저기 물 좀 넣어 놓으라니까..

현석이 글을 쓰고 있다.

현석 (집중 한 듯)차가운 물 몸에 안 좋아요

리오 안 자?

현석 아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리오 흐.. 열심히 하네..
현석 더 주무세요~ 저도 잘게요.
리오 응 알겠어.

리오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현석.
뒤이어 옆에 있는 사진을 바라본다.

현석 열심히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쓰레기통으로 휴지를 던지는 현석. 들어가지 않는다.
한숨을 쉬는 현석.

S#10. 현석의 집 (낮 / 안) 12월 23일

기지개를 펴는 현석

현석 아..아.. 끝났다.
리오 끝냈어?
현석 예.. 끝났어요
리오 넌 진짜 징하다
현석 좀 있으면 멸망이잖아.
리오 그러게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듯 웃는다

현석 아 리오씨. 마지막이니까. 여행이라도 가실래요?
리오 여행? 갑자기?
현석 이번 아니면 못가잖아요
리오 신났구만 그럴까..? 어디로 갈까?
현석 음. 바다 어때요?
리오 바다? 좋아

S#11. 현석의 차 (낮 / 안) 12월 23일

둘이서 차를 타고 가고 있고 자고 있는 리오를 현석이 깨우며 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리오 응.. 도착했어?
현석 저기보세요 (창문을 내리며)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구간이에요.

S#12. 바닷가 (낮 / 밖) 12월 23일

리오와 현석이 밥을 먹고 있다.

리오가 돌면서 바다를 뛰고 현석은 텐트를 치면서 그런 리오를 바라본다.

S#13. 바닷가 (밤 / 밖) 12월 23일

현석과 리오가 캠핑 의자에 앉아있다.

현석이 자신의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조작한다.

리오 이건 뭐야.
현석 잠시만요. 되려나 어 나온다!

빔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온다.

현석은 자신의 차에 빔 프로젝터를 쏜다.

현석이 만들었던 영화가 나온다.

리오 뭔데.
현석 제가 찍은 영화들이예요. 아 옛날에 학생 때 했던 거예요.

휴대용 빔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오고 그걸 보는 리오와 현석

현석 네 여기까지.
리오 뭐야 여기서 끝이야?
현석 시간은 다가오는데 결말을 다 못 낸 거예요. 비운의 미완성작.
리오 왜?
현석 주인공은 사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전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 못 찾았거든요.
리오 대작이겠네.
현석 그렇지도 모르죠

리오가 현석에게 달라붙어서 시끄럽게 한다.

리오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현석 (가볍게 웃으며)어떤 게 좋으세요?
리오 난 해피엔딩이 좋아.
현석 왜요?
리오 인생 사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해피엔딩은 아닌 거 같아서? 너무 평범한 거 같아. 근데 새드엔딩은 좀.. 그래!
현석 해피엔딩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리오 시청자가 보기에 정말 너무 행복해서 넘쳐 날 정도여야 되나..?
현석 근데 행복이란 것도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인공이 만족하면 해피엔딩이지 않을까요?

현석이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어간다.

현석 우리는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리오 그러게. 음 해피엔딩일까? 난
현석 그것도 모르겠네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윤희?
리오 더 살고 싶어?
현석 어 그닥요..? 충분한 거 같은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건 최악이거든요.
 (리오 눈치를 보며 조용하게)앞은 보이지도 않고 뒤는 지옥이고.
리오 (눈치를 보다가)그 가족 분들이 좀 별로야?

응? 하는 듯 쳐다보는 현석

리오 아니 연락도 안 하고 그러길래
현석 저도 뭐 이방인인가 보죠 리오 씨처럼

현석이 가만히 불빛을 바라보다가 말하기 시작한다.

현석 음 좋은 사람이어서 싫어요. 전 평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열등감
 이라고 하기엔 좀 무겁고 동경이라고 하기엔 질척이는 느낌? 너무 좋은 사
 람들이 나 때문에 오염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제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심장이 조여와요 계속 계속. 너무 빛나니까 제가 어
 두워 보이고. 이해 안 되시죠?
리오 너도 충분히 좋은데?
현석 흥내 내는 거죠 뭐.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들 덕분이니깐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자신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꼴 보기가 싫거든요
리오 내가 보기엔 너도 좋은 사람이야.
현석 다행이네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듯 서로를 쳐다보고 리오 누워버린다.

리오 잠이나 잘래!
현석 네네

하늘을 리오 시점으로 바라본다.

밤에 별을 보며

리오 고작 저 먼지만 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한 과학자가
 있대. 신 선생님이 볼 때 우주 중에서 지구는 엄청 작겠지?
현석 지구가 사라지면 점 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리오가 고개를 돌려 현석을 쳐다본다.

리오 바보..

리오가 다시 고개를 원상 복귀한다.

리오 왜 끝나는 걸까.
현석 운석이 떨어진대요.
리오 감정이 없을 거 같아. 신은 뭔가
현석 그러게요. 세상은 하나의 프로그램 아닐까요. 신은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고.
 그냥 백신을 쓰는 거뿐인 거예요.
리오 우리는 세상에 해가 되는 바이러스니까 백신을 쓰는 걸까.
현석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리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 거지? 마지막 날이
현석 네 오늘이 23일이고 내일이 24일이니깐요

리오가 일어나서 말한다.

리오 그러면 다음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1월 1일이네?
현석 그러게요.
리오 그거 알아? 옛날에는 12월 25일이 새해 첫날이었는데
현석 아 진짜요?
리오 다음 세상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을 수도 있는 거겠지?
현석 그러게요. 그쪽 세상에 신 님은 다른 날이 생일일 수도 있으니까.
리오 그러니까. 이제. 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 놓을래. 메리 크리스마스.
 헤헤 처음 해봐. 어떡하지.. 짜증나.
현석 왜요.?
리오 즐거워서.
현석 왜요?
리오 즐거운 게 내일이면 끝날지도 모르니까.
현석 그러게요.

둘이 누워있는데 눈을 둘 다 뜨고 있고 화면만 검어진다.

S#14. 바닷가 (낮 / 밖) 12월 24일

누워있는 리오
자리를 정리하고 정리 한 자리를 쳐다보는 리오.
리오가 오토마톤을 들고 멀리를 보고 있는 현석 옆에 붙는다.
현석이 정면을 보며 말한다.

현석 (바라보지 않고)어 일어났어요?
리오 마지막 날이네.
현석 그러게요.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현석과 리오 (1분 정도)

총을 앞으로 향해 노리는 현석

현석 약속 지킬게요.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리오 이브에 엔딩이라니 로맨틱하네
현석 그러게요
리오 소원을 왜 들어주는 거야?
현석 응? 이유요? 없어요.
리오 어?
현석 믿기로 했거든요. 당신 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도. 이유를 대는 것도 바보
 같아요. 그리고.. 에이! 사람 일에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내 맘이에요
리오 (웃으며 어이없다는 듯이)너무 늦은 거 아니야?
현석 (웃으며)6일밖에 안 걸렸는 걸요
리오 그러게 그렇구나.
현석 가실까요
리오 음 난 여기가 좋아!
현석 왜요?
리오 내 맘이야. ㅎㅎ

리오가 바위 쪽으로 뛰어간다.

리오 어제 보니까 여기가 달이 잘 보이더라구
현석 달이요?
리오 응 맨 처음 나온 날 본 달이 너무 밝았거든. 그래서 좋았어 뭐 처음 봐서
 그런가?

리오가 한 바퀴 돈다.

현석 마지막으로 남길 말 있어요?
리오 모르겠어.
현석 그래요. 유언 없으시면 제 유언 말할게요.. 잘 들어 주세요
리오 응.
현석 리오씨
리오 응.
현석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다 거짓말이었답니다. 하고 몰래카메라였다
 고 말해줬으면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리오 그러게
현석 당신이 그랬죠. 만약에 만약에 크리스마스이브를 넘길 수 있으면 어떨 거 같
 냐고. 뭐가 제일 하고 싶냐고. 자고 싶어요. 편집자한테 사과도 하고 싶고
 캔디바도 먹고 싶고. 집에 같이 들어갈까? 오늘 뭐 먹을까? 아 맛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소박한가?

현석이 최대한 눈까지 감으면서 웃는다.

현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봐요.
리오 하.. 말했잖(아.) [뒤 목음처리]

머리에 총을 대는 현석

현석 또 모르잖아요 다음이 있을 수도.
리오 너.. 너
현석 그러면. 이제 제가 선배네요.

오토마톤 소리 뻑.

현석(NA) 신 님 제 인생은 어땠나요?

쓰러지는 현석 (슬로우 모션)

리오가 놀란 듯 쫓아간다. (슬로우 모션)

현석(NA) 한 50점짜리는 됐을까. 미안 난 끝까지 이기적이고 나쁜가 봐요. 좀 있다가
 봐요.

검은 화면으로 전환 된다.

그리고 눈을 뜨는 듯이 화면이 켜지고 현석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리오가 보인다.

현석 천국인가요.
리오 아니 지옥이야.
현석 그럴 거 같더라
리오 난 마지막까지 날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최악이야. 왜 쏜 거야 너한테
 왜 왜 그렇게 한 거야.
현석 아.. 사치 좀 부렸어요. 마지막이 돼서야 주위가 보이더라구요. 리오씨랑 저
 랑 똑같다며요. 그때 그랬잖아요. 나는 너라고. 그리고 소원은 들어주는 사
 람 마음이니깐요..

현석이 총으로 쏘으면 맞았을 부위를 쓰다듬는다.

리오 그 총 뒤로 나가.
현석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아프더만. 찍힌 거였네. 아 그러면 처음이네요. 산 사
 람은.

현석이 누워 있다.

리오 그러게. 그렇네
현석 아 그러면 유언 다시 써야겠네. 내일치로.
리오 그냥 오늘 걸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현석 이야기는 말이죠 음 개연성 그러니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리오 바보 같네.
현석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아 이제 죽을 테니까 이쪽이 더 바보 같은 건가

리오가 먼저 웃고 현석이 따라서 웃는다.

현석 이제 돌아갈까요?
리오 그럴까.

S#15. 현석의 집 (저녁 / 안) 12월 24일

신발장에 현석과 리오의 신발이 보인다.

화면엔 신발장. 현석과 리오는 목소리만 들린다.

리오(V.O) 오늘 저녁 뭐야?
현석(V.O) 카레 어때요?
리오(V.O) 으.. 카레 싫은데.
현석(V.O) 왜 맛있기만 한데
리오(V.O) 넌 카레에 고등어 머리를 넣잖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으아아아아

둘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제목 타이틀 디자인 [가족]

[엔딩크레딧]